

SKT T전화, ‘AI통화녹음’으로 더 똑똑해진다

**- 녹음된 음성 통화 내용을 대화창 형태로 제공…원하는 내용 쉽게 확인**

**- 통화 내용 검색ᆞ자동 키워드 추출ᆞAI 추천 키워드 등 편의 기능 추가 탑재**

**- 23일부터 베타 서비스 시작… T전화 앱에서 신청 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**

|  |
| --- |
| **※ 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** **※ T전화 ‘AI통화녹음’ 시연영상을 아래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****(**[**https://youtu.be/Q3wNhILL5zk**](https://youtu.be/Q3wNhILL5zk)**)** |

**[2021.11.23]**

“SKT ‘AI통화녹음 서비스’가 당신의 일하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.”

SK텔레콤(대표이사 사장 유영상, [www.sktelecom.com](http://www.sktelecom.com))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T전화에 음성 통화 녹음을 문자로 변경해 제공하는 ‘AI통화녹음’ 서비스를 추가, 23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
SKT의 ‘AI통화녹음’은 통화 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문자로 전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, 기존 T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에 STT\*ᆞ대화 분석 등 AI 기술을 더해 제작됐다.

\* STT(Speech to Text): AI를 통해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

SKT는 ‘AI통화녹음’의 화면을 대화창 형태로 구성, 이용자가 자신과 통화 상대방의 대화를 한 눈에 구분하고 전체 통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,
▲**검색 기능**을 통해 원하는 통화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.

또한, SKT는 통화 중 말한 전화번호나 일정, 계좌번호 등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▲**자동 키워드 추출 기능**과 통화 내용에 AI가 추천한 키워드를 설정해 통화 목록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▲**통화 대표 키워드 기능**도 ‘AI통화녹음’에 탑재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.

이처럼 ‘AI 통화녹음’의 다양한 기능들은 휘발되던 음성통화를 텍스트 데이터로 자동 전환시킴으로써 활용성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. 즉 전화통화를 통한 비즈니스 업무나 회의, 직무상 인터뷰, 부동산 계약, 고객센터 상담 등 업무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SKT의 ‘AI통화녹음’ 서비스는 23일부터 T전화 앱을 통해 베타 서비스 참가를 신청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다. 참가 신청은 T전화 앱 내 통화녹음 설정 메뉴에서 ‘AI통화녹음’ 베타 서비스 안내 확인 및 약관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.

베타 서비스 기간 중에는 무료로 모든 통화를 문자 변환해 확인할 수 있으며, 통화 녹음의 문자 변환은 베타 서비스 참여 이후 생성된 통화에만 적용된다. 베타 서비스 참가는 이용자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.

SKT는 이번 ‘AI통화녹음’ 베타 서비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해 정식 버전으로 출시할 계획이다.

이현아 SKT AI&CO 담당은 “’AI통화녹음’을 통해 SKT의 T전화가 한층 더 스마트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했다”며, “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통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”고 밝혔다.

|  |
| --- |
| **※ 사진 설명**SK텔레콤은 T전화에 기존 통화 녹음을 문자로 변경해 제공하는 ‘AI통화녹음’ 기능을 추가, 23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 |

**▶ 관련 문의: SK텔레콤 PR실 혁신PR팀 김재익 매니저 (02-6100-6714)**

**<끝>**